

이삭을 놀리다(메자핵, פִּתְיוֹן)?

- 창세기 21:9 번역 재고 -

민경구*

1. 들어가는 말

‘번역은 반역이다.’ 이 오래된 격언에도 불구하고, 번역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성서 번역이 주전 3세기 이전부터 있었고, 자구(字句) 하나로 오랜 논쟁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 이전까지 성서 번역이 공적인 영역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심지어 가블러(J. P. Gabler)가 성서 자체에로 관심을 전환시키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성서에 대한 관심은 곧 성서가 담고 있는 말씀을 현대어로 번역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그러한 행위는 전문가의 과제이다. 번역을 하는 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번역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문자적 번역으로 알려진 직역(literal translation), 뜻에 맞게 번역하는 의역(free translation), 그리고 형식적 일치(formal correspondence)와 역동적 동등성(dynamic equivalence)으로 요약될 수 있다.¹⁾

* Westfälische Wilhelms-Universität Münster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구약학 교수. 92vision@hanmail.net.

1) 나채운, “표준새번역에 대한 바른 이해(I)”, 『기독교사상』 37 (1993. 10.), 110-114. 김동혁은 드라이든(J. Dryden)을 인용하여 번역 방식을 셋으로 구분한다: 첫째, metaphrase는 “원저자를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한 단어씩, 한 문장씩, 옮기는 것”으로 문자적 번역에 해당한다. 둘째, paraphrase는 “약간의 자유가 가미된”, “원저자를 시야에서 결코 놓치지 않으면서도, 원저자가 사용한 말보다는 그가 표현한 의미를 더 중시하며, 그 의미를 확대하

하지만 일반 번역과 달리 성서 번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적지 않은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로 신학적 입장을 꼽는다면 지나친 것일까? 아이히로트(W. Eichrodt)는 오래전에 ‘언약’ 개념으로 구약을 관통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그것이 관철되지는 못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창세기부터 신약성서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성서를 해석해 왔던 오래된 관점은 아브라함 혈통을 계승하는 자손을 선택받은 자로 간주하고, 그들을 ‘언약’ 백성이라 일컬었다. ‘아브라함 - 이삭 - 야곱’은 종종 하나님과 연결되어 언약의 계보를 가리키지만(출 3:6, 15), 반대로 ‘이스마엘’과 ‘에서’는 언약으로부터 배제된 인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선입견은 번역자가 언약에서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인물을 부정적 뉘앙스 또는 용어로 표현하도록 영향을 끼치기도 하며, 심지어 히브리어 성서에는 사용되지 않은 용어가 첨가되기도 했다.

2. 창세기 21:9 번역 재고

이스마엘의 출생은 창세기 16장 이하에서 서술되었다. 사라는 자신이 아이를 잉태함을 알고 자신이 데리고 있던 애굽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양자를 얻고자 했다(창 16:2). 이러한 방식으로 양자를 얻는 것은 고대의 관습이었고, 야곱 이야기에서도 관찰된다(창 30:5-13). 하지만 성서는 하갈이 잉태함과 동시에 여주인을 멸시하였다고 기록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를 보여주었고, 그 갈등은 이삭을 출생한 후에 절정에 달한다(창 21:9).

그 가운데 눈에 띄는 본문은 창세기 21:9인데, 하갈 모자(母子)를 추방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처럼 해석되었다. 우리는 창세기 21:9의 다양한 역본들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는 경우는 있으나 변개하지는 않는” 방식이다. 세 번째 방식은 imitation으로 이 원리를 따르는 “번역자는 단어와 의미, 이 둘 중 하나를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 둘 모두 선택하지 않기도 한다”. 김동혁, “성경 번역 내의 형식 일치에 관한 소고 - 신명기적 표현 몇 가지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1호 별책 (2012), 30-38. 특별히 30.

2) G. Hasel, 『구약신학: 현대 논쟁의 기본 이슈들』, 김정우 역 (서울: 엠마오, 1993), 64-65.

- 『개역개정』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 『새번역』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 『공동개정』 그런데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 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사악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 『성경』 그런데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낳아 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사악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 ELB Und Sara sah den Sohn der Ägypterin Hagar, den diese dem Abraham geboren hatte, scherzen.
- ZB(2007) Sara aber sah, wie der Sohn der Ägypterin Hagar, den diese Abraham geboren hatte, spielte.
- ESV But Sarah saw the son of Hagar the Egyptian, whom she had borne to Abraham, laughing.
- NRS But Sarah saw the son of Hagar the Egyptian, whom she had borne to Abraham, playing with her son Isaac.
- NIV But Sarah saw that the son whom Hagar the Egyptian had borne to Abraham was mocking.

위에 역본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이삭’의 이름이 언급되는 여부이다. 둘째, ‘놀리다’의 의미가 ‘놀다’ 등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는 점이다.

2.1. 이삭

우리는 먼저 ‘이삭’이 언급되는 이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위에 언급된 역본들 가운데 특히 한글 성서는 모두 ‘이삭’을 언급하고 있다. 한국 교회 성도가 대체로 한글을 주로 사용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삭’에 대한 언급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처럼 간주된다. 하지만 독일어/영어 성서에서 ‘이삭’의 이름은 오히려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삭’의 이름은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이어갈 수 있으며, 이 질문과 관련하여 고대 사본을 찾아볼 수 있다.

BHS	וַתֵּרָא שָׂרָה אֶת־בְּנֵי־הַגֵּר הַמִּצְרַיִת אֲשֶׁר־יָלְדָה לְאַבְרָהָם מִצְחָק
Samaritan Pentateuch	וַתֵּרָא שָׂרָה אֶת בְּנֵי הַגֵּר הַמִּצְרַיִת אֲשֶׁר יָלְדָה לְאַבְרָהָם מִצְחָק
LXX	ἰδοῦσα δὲ Σάρρα τὸν υἱὸν Ἀγάρ τῆς Αἰγυπτίας, ὃς ἐγένετο τῷ Ἀβραάμ, παίζοντα μετὰ Ἰσαὰκ τοῦ υἱοῦ ἑαυτῆς
VUL	Cumque vidisset Sara filium Agar Aegyptiae ludentem cum Isaac filio suo, dixit ad Abraham

히브리어 본문(BHS)을 살펴보면 우리는 창세기 21:9에는 ‘이삭(יִצְחָק)’을 가리키는 단어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마리아 오경(Samaritan Pentateuch)에서도 동일하다. 즉, 『개역개정』을 비롯한 한글 성서에는 히브리어 본문에 없는 것이 첨가되어 있다. 이 경우에 우리는 ‘가능한 원문에 없는 말을 번역에 덧붙이지 말라’³⁾는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론 개역개정에서 ‘이삭을’은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 본문에는 없는 것임을 암시하는 정도로 그칠 뿐이지만, 그것을 인지하는 한국 독자는 얼마나 될까? 이와 달리 그리스어(LXX)/라틴어(VUL) 역본에는 Ἰσαὰκ /Isaac 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는 구약 성서가 BHS를 기반으로 번역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삭’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은 한글 성서가 그리스어 역본의 전통을 따르는 경우에 수용되지만, 히브리어 성서의 전통을 따른다면 적절하지 않은 문구이다.

2.2.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으로 해석되는 근거는 무엇일까? 우리는 창세기 21:9의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4:28-29에서 해석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개역개정』

(갈 4:28-29)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신약의 저자가 구약 성서를 해석할 뿐이지, 구약성서가 신약의 이야기를 해석할 수는 없다. 역으

3) 강소라, “다음 세대의 성경 독자를 위한 번역 제안”, 『성경원문연구』 31 (2012), 84-90. 특별히 85.

로 우리는 여기에서 신약적 선이해가 이스마엘 이야기를 번역하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야 한다. 이것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창세기 21:9의 ‘놀리는지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스마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이 용어는 해석에 여러 논의가 있어 왔다. 전술한 역본에 따르면 『새번역』 정도만이 ‘놀리고 있었다’로 번역할 뿐이며, 다른 한글 역본들은 ‘놀다’로 번역하였다. 독일어 및 영어 성서를 살피면 대체로 ‘놀다/장난하다’의 의미로 번역하고 있으며, NIV만이 mocking으로 번역하여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다.

9절에는 ‘웃다’(짜חק, צָחַק)의 피엘(Piel) 분사 형태인 ‘메짜핵(מִצְחֵק)’이 사용되었다. 이삭의 이름도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는 점에서, 이 단어는 긍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어/라틴어 역본에서 מִצְחֵק에 상응하는 분사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παίζοντα/ludentem), 이것은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놀다’를 가리킨다. 이 단어를 풀이하기 위해 학자들은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베스트먼(C. Westermann)은 전치사와 함께 쓰이지 않은 상태에서 מִצְחֵק을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⁴⁾ 하틀리(J. E. Hartley)는 이 표현이 어떤 행동을 가리키는지 모호하지만, 이스마엘이 이삭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설명한다.⁵⁾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해밀턴(V. P. Hamilton)도 “이스마엘이 자신을 이삭처럼 보이게 하는”⁶⁾ 행위라고 서술한다. 덧붙여 사르나(N. Sarna)는 이에 대해 이삭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것을 시기하여(8절) 이스마엘이 자신의 장자권을 주장하는 모습으로 랍비들이 오랫동안 해석해왔음을 설명한다.⁷⁾

피엘 형태의 이 단어는 이곳 외에도 창세기 39:14, 17에서 성적 희롱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모두 전치사 ‘베(בְּ)’와 함께 사용되었다. 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창세기 21:9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창세기 26:8하반이다.

(창 21:9)

וַתֵּרָא שָׂרָה אֶת-בְּנֵי-הַנֶּגֶר הַמִּצְרִית אֲשֶׁר-יָלְדָה לְאַבְרָהָם מִצְחֵק

(창 26:8하반)

וַיֵּרָא וַהֲנִיחַ 'צָחֵק מִצְחֵק אֶת רַבְקָה אִשְׁתּוֹ

4) C. Westermann, *Genesis 12-36*, BKAT I/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1), 414-415. 그와 달리 전치사를 동반한 부정적 의미로는 창 39:17을 참조하라.

5) J. E. Hartley, 『창세기』, 김진선 역 (서울: 성서유니온, 2019), 297.

6) V. P. Hamilton, 『창세기 18-50』, 임요한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111.

7) N. M. Sarna, *Genesis*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146.

여기에는 ‘보다’(라아, רָאָה)라는 동사와 그 목적어(이삭/이스마엘)의 행위가 나타난다. 한 본문에는 ‘사라가 이스마엘이 מַצְחֵק 하는 것을 보고’ 있다(창 21:9), 다른 본문에서 ‘아비멜렉은 이삭이 מַצְחֵק 하는 것을 보고’ 있다(창 26:8하반). 이스마엘과 이삭의 행위는 모두 ‘메짜헵(מַצְחֵק)’으로 표현되었다. 두 본문에서 유사한 또 다른 부분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행위가 모두 ‘보는’ 주체로 하여금 질투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하지만 두 본문에서 언급하는 질투는 동일하지 않다. 아비멜렉의 질투는 남녀 사이의 또는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한 감정의 표현이라면, 사라의 질투는 이삭의 유업을 빼앗길 것에 대한 질투이다. 두 본문에는 또 다른 차이점이 관찰된다. 창세기 21장에서 사라는 이스마엘 ‘개인’이 מַצְחֵק 하는 것을 보고 있다면, 창세기 26장에서 아비멜렉은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מַצְחֵק 하는 것을 보았다. 이에 ‘이삭과 리브가’의 용례를 성적인 행위로 볼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웃다’로 번역하는 것으로도 의미는 충분하다. 그와 달리 이스마엘의 용례는 성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메짜헵(מַצְחֵק)’이 ‘웃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때 창세기 21:9와 26:8하반은 적절하게 해석된다. 덧붙여 창세기 21:9에서 이스마엘의 웃음은 사라를 향한 웃음일 가능성이 높다.⁸⁾ 히브리어 성서에는 ‘이삭’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으며, 이스마엘의 웃음에 분노하는 대상은 ‘사라’이기 때문이다.

3. 나가는 말

본 소논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재고해 보았다. 첫째, 창세기 21:9의 ‘메짜헵(מַצְחֵק)’은 ‘(이삭을) 놀리는’ 이스마엘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는 히브리어 성서에 ‘이삭을’이라는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설령 그것이 작은 글씨로 표현되었다 하더라도, 한글 성서가 BHS를 기반으로 번역되었으므로, 이는 번역의 사족이며 해석을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삭을’이라는 목적어는 מַצְחֵק을 ‘놀리다’라는 의미로 번역하기 위한 발판이 되므로, 번역에서 지워져야 한다.

둘째, 개역개정에서 ‘놀리다’로 번역된 מַצְחֵק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창세기 26:8하반과 함께 중립적 의미인 ‘놀다’로 번역되는 것이 적절하다. 여

8) 참조, B. Jacob, *Das Buch Genesis* (Stuttgart: Calwer Verlag, 2000), 480.

러 학자들이 이 단어의 함의를 해석하기 위해 많은 제안을 한 것처럼, 이 용어가 담고 있는 뜻을 풀어내는 것은 해석자의 몫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창세기 21:9를 다음과 같이 번역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때 사라 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즉 그녀가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투고 일자: 2022년 3월 7일, 심사 일자: 2022년 7월 8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7월 11일)